

# 조선총독부 간행 「일본어·영어 대조 텍스트」

: 사료군의 보고 및 연구전망

김효숙\*, 곽은주\*\*, 이병진\*\*\*, 탁진영\*\*\*\*

##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영문(英文) 텍스트와 그 기능
- III. 「일본어·영어 대조 텍스트 사료군」의 연구 의의
- IV. 나오며

### 국문초록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일본어와 한국어로 쓰인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영어로 쓰인 텍스트는 분석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당시 일본어 자료뿐만 아니라 그와 대응하는 영어 자료도 다수 발행하였다. 즉 「일본어·영어 대조 텍스트」라는 사료군이 존재하는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조선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구열강의 「승인」을 목적으로 「문명의 언어」이자 타자(他者)의 언어인 영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영어 텍스트는 서구 열강의 동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이자 퍼포먼스로 식민지 통치를 위해 작성된 일본어 텍스트와는 그 궤를 달리 한다. 「일본

\* 세종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제학부 일어일문학 전공 조교수, 일본문학 및 문화

\*\* 세종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제학부 영어영문학 전공 교수, 영어학, 번역학

\*\*\* 세종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제학부 일어일문학 전공 교수, 비교문학, 비교문화

\*\*\*\* 세종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제학부 영어영문학 전공 교수, 영어학

어·영어 대조 텍스트」는 그 이중성을 구체적·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조선총독부의 대내적·대외적 의식구조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중요 사료로 이에 대한 정밀한 조사 및 분석이 촉구된다.

본고는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일본어·영어 대조 텍스트」라는 새로운 사료군의 연구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조선총독부가 어떠한 문건들을 제작했는지 보고한다. 그리고 이러한 텍스트가 국경을 넘어 유통·소비되는 연속구조를 고찰하고, 일본어와 한국어 텍스트를 기반으로 축적된 기존 연구에 확장성을 제시한다.

## 주제어

조선총독부, 영어, 일본어, 「일본어·영어 대조 텍스트」, 일제강점기

---

# 1. 들어가며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공문서, 책자 등의 출판물은 일제강점기라는 역사 공간을 재단(裁斷)하는 사료로서 지금까지 다각적인 학술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기존 연구의 접근 방법을 살펴보면, 내용 분석을 통한 다면적인 역사 해석은 물론이거니와, 근년에는 문서생성의 체제 즉 형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이경용은 기록관리 부서 및 제도의 포괄적 검토를 통해 조선총독부의 문서발행 기준을 제시한다<sup>1)</sup>. 박성진·이승일은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공문서 관리체제가 원활한 식민지 관리를 위한 문서 생산, 유지, 활동에 치중되었음을 밝힌다.<sup>2)</sup>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조선총독부가 자료를 어떻게 발행하고 어떠한 과정을 걸쳐 보존 혹은 폐기하는지 전체적인 조망을

---

1) 이경용,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 제도」, 『한국기록학연구』10, 한국기록학회, 2004, pp.226-275.

2) 박성진 외, 『조선총독부 공문서 일제시기 기록관리와 식민지배』, 역사비평사, 2007, pp.11-352.

가능하게 한다. 또한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개별 문서는 『조선총독부 공문서 종합목록집』(2005)<sup>3)</sup>, 『조선총독부 공문서 다계층 상세목록집』(2005)<sup>4)</sup>에 집대성되어 있어, 자료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편 이러한 기존의 연구 및 자료 정리는 주로 일본어와 한국어로 쓰인 텍스트가 대상이며, 영어로 쓰인 텍스트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당시 일본어 자료뿐만 아니라 영어 자료도 다수 발행하였으며, 특히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일본어로 쓰인 문건을 다시 영어로 재생산하여 대내외에 발표하였다. 이 영어 문건의 저작 및 발표는 일본어로 된 문건과는 그 목표 대상이 다르고, 저작 목적이 상이하하며, 그렇기에 번역의 문제를 넘어 텍스트의 결 자체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고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영문 텍스트 특히 「일본어·영어 대조 텍스트」 사료군의 존재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 의의와 연구 전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II.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영문(英文) 텍스트와 그 기능

조선총독부는 영문으로 제작된 문건을 다수 발행하였다.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주요자료는 1930년~1938년까지 6회에 걸쳐 『조선총독부 급 소속관서 주요 간행 도서 목록(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 主要刊行圖書目錄)』에 기록되어 있다. 이 목록은 전년도 기록에 새롭게 간행한 자료를 점차 추가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마지막 간행년도인 1938년도의 목록이 양적으로 가장 많다. 1938년도 목록에서 영문으로 간행된 자료만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sup>5)</sup>.

3) 한국가기록연구원, 『조선총독부 공문서 종합목록집』, 한울, 2005.

4) 한국가기록연구원, 『조선총독부 공문서 다계층 상세목록집』, 한울, 2005.

5) 조선총독부 관방문서과, 『조선총독부 급 소속관서 주요 간행 도서 목록(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 主要刊行圖書目錄』, 1938. 영문 텍스트만을 발췌하였으나 다만 「The Keijo Journal of Medicine, Vol.1, No.1」과 같이 타이틀은 영문이지만, 본문이 영

【표1】 조선총독부 발행 영문 텍스트

	편저역술자	명칭	간행관서	출판연월	비고
①	총독관방 의사과	Chosen (Korea)	총독부	1929	
②	총독관방 의사과	Chosen of To-day	총독부	1930,10	
③	총독관방 의사과	Glimpse of Twenty Year's Administration in Chosen	총독부	1932, 2	
④	총독관방 의사과	Chosen and among its People	총독부	1933,8	여부(餘部) 없음 Extempore by Gov-General Ugaki
⑤	총독관방 의사과	Bright future for Chosen	총독부	1935,2	speech by Gov-General Ugaki
⑥	총독관방 의사과	Thriving Chosen (a survey of Twenty five year's administration)	총독부	1935,10	시정 25주년 기념호
⑦	총독관방 의사과	Annual report on administration of Chosen 1933-34	총독부	1935,12	매년 갱신 1932-33년 이전 여부 없음
⑧	기사(技士) 오카모토 한지로 (岡本半次郎)	Zweiter Beitrag zur Kenutins Japanischen Plecopteren Bulletin Vol.1, No.2, (1929)	권업모범장	1922,3	여부 없음
⑨	기사 오카모토 한지로	The Insect Fauna of Quelpart Island, Bulletin, Vol.1, No.2(1924)	권업모범장	1924, 3	
⑩	기사 나카야마 쇼노스케 (中山昌之助) 다나카 노리요시 (田中教義) 마루타 스케테루 (丸田助輝)	The Woolly Apple Aphis in Chosen Bulletin No.4(1928)	권업모범장	1928,10	여부 없음
⑪	기사 다카하시 노보루 (高橋昇) 기사 오카모토 한지로	Studies on the Inheritance of the Spring and Winter Growing Habit in Grosses between Spring and Winter Barleys, Studies on the Pear-Stem Girdler the Mecoptera of Corea Bulletin Vol.2, No.1, (1925)	권업모범장	1925,2	여부 없음

문인지 확인 불가능한 항목은 생략하였다.

⑫	우메야 요시치로 (梅谷与七郎)	Experimets of Ovarian Transplantation and Blood Transfusion in Silkworm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Alternation of Voltinism,	권업모범장 잠업시험소	1926	
⑬	도자와 마타지로 (戸沢又次郎)	주요 임목 종자의 발아 촉진에 관한 시험(主要林木種子ノ発芽促進ニ関スル試験)		1926,6	별도로 동일 내용의 영문 보고 있음
⑭	무라야마 조조 (村山醸造)	A Contribution to the Morphogical and Taxonomic Study of Larvae of Certain May-Bretles which occur in the Nurseries of the Peninsula of Korea	임업시험장	1931,2	
⑮		Chosen	철도국 서무과	1931,3	영문

『조선총독부 급 소속관서 주요 간행 도서 목록』은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서적을 총망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표에 제시한 것 외에도 영문 자료가 다수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위의 표를 토대로 영문 자료의 편자 혹은 저자를 살펴보면 ①~⑦은 총독관방의 외사과(外事課)이고, 동식물에 관한 논문인 ⑧~⑮는 각 연구자이다. 전문 영역의 논문 이외에 영어 텍스트 발간은 주로 외사과가 담당했는데, 외사과는 조선총독부의 기구 개편에 따라 그 명칭과 소속관서가 바뀌었다. 예를 들면 1910년 한일병합 직후에는 총무부의 산하에 「외사국」이 설치되었고, 1919년 관제 개편 이후에는 총독관방에 「외사과」가 설치되었다. 또한 1939년에는 총독관방 소속의 외무부를 승격시켜 외무과와 척무과를 둔 외사부를 신설했다.<sup>6)</sup>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의 분류에 의하면 총독관방 외사는 「외사일반, 조약·협정, 영사관·외국인, 재외 조선인, 국경」<sup>7)</sup>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이다. 따라서 위 ①~⑦의 영어 문건도 외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외사과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6) 박성진 외(2007), pp.125-129.

7) 박성진 외(2007), p.121.

【표1】 영어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⑥『Thriving Chosen(a survey of Twenty five year's administration)』은 조선총독부의 시정(施政) 25주년을 기념하여 발행한 책자이다. 『Thriving Chosen』(번영하는 조선)이라는 타이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식민정책을 미화하기 위해 저작된 것이다. 이 문건에 대해서는, 매일신보(每日新報)가 「영문 25년사 각방면에 반포(英文 廿五年史 各方面에 頒布)」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다<sup>8)</sup>. 즉 총독부 외사과가 시정 25주년 기념으로 1,500부를 출간해서 관계 방면에 배포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이러한 책자가 당시의 「국어」였던 일본어 혹은 식민지의 언어 한국어가 아니라 바로 영어로 쓰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위의 표 ⑦ 『Annual report on administration of Chosen 1933~1934』는 총독부의 시정연보(施政年譜)를 다시 영문으로 번역하여 발행한 것이다. 시정연보는 조선의 자원과 경제, 교육 등의 통계지수를 수록한 것인데, 영문 시정연보는 해당연도뿐 아니라 1907년부터 1940년까지 매해 발행되었으며, 이 영문판 시정연보는 국경을 넘어 해외로도 유통되었다. 영문판 시정연보의 해외 유통의 양상과 역할은 다음의 『매일신보』 기사로부터 추측할 수 있다.

朝鮮의 進歩

(一九一四年 一月四日 米國 桑港 發行 크로니클 新聞 社說)

植民的 國民으로 日本能力의 甚深한 稱讚에 值할 것은 朝鮮併合後의 進歩改善을 敘述한 朝鮮總督府 英文 施政年報의 事를 見하고 此를 可知할지 라.....

8) 『매일신보』, 1935년 11월 01일, 면수 지정 없음. 「總督府 外事課에서 미리부터 編纂 中の 英文 施政 二十五年 記念號 千五百部 는 요즈음 完成되었으므로 各 關係方面에 頒布하였다」. 기사 본문 인용에 있어서는 가독성을 위해 띄어쓰기, 철자법, 구두점을 현행 한국어 문법에 맞추어 개정하였다. 이하 동일.

英文施政年報는 樂觀的 記錄되는 同時에 又 技巧的 印刷物됨을 可得할지니 其 印刷圖解가 皆 世界各地에 對한 最善한 刊行物에 比하여 毫末도 遜色이 無하도다 要하건데 該年報는 日本이 一大帝國된 地上의 要礎 卽 新領土를 統治하여 其 産業 貿易을 發達增進케 하고 且 新附人民의 和親과 忠誠을 保全하는 能力이 有함을 表明하는 것이라 謂하리로다.<sup>9)</sup>

위 기사는 미국의 「桑港」 즉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된 크로니클 신문(San Francisco Chronicle)의 사실을 조선의 매일신보가 다시 소개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은, 조선총독부 영문 시정연보에는 조선 병합 후에 조선이 얼마나 진보되고 개선되었는지가 서술되어 있는데, 이를 보건대 일본 능력은 심심한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고 평하고 있다. 또한 영문 시정연보는 「낙관적 기록」 즉 조선의 장래가 낙관적임을 예상하게 하는 기록물임과 동시에, 「기공적(技巧的)」 인쇄물이라고 평한다. 다시 말하면 영문 시정정보가 내용적인 측면뿐 아니라 인쇄물 그 자체로서도 세계각지의 최고의 간행물과 비교해서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양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양질의 영문 시정연보를 간행한 일본은 신영토 조선을 통치하여 산업과 무역을 발달 증진시키고, 조선인의 화친과 충성을 다하게 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했다고 결론짓는다.

영문 시정연보에 대한 평가가 곧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고 조선의 진보를 예측하는 매개체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일신보는 위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의 영문 시정연보 관련 기사를 소개한 이틀 후, 이번에는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에서 발행된 사실을 소개한다.

---

9) 「朝鮮의 進歩」, 『매일신보』, 1914년 7월 10일, 1면.

### 朝鮮의 進步 改善

一九一四年 一月 馬尼刺 發行 英文雜誌「比津賓코라후쓰만」社說 右雜誌는 比津賓 學務國에서 發刊하여 東島 公立學校 教育의 開發을 目的하는 것이라

朝鮮總督府 英文 施政年報는 皆 趣味가 廣大한 工業科 敎員에 有益한 許 多한 記事를 包有하다. 泰西의 精神을 咀嚼한 一東方國이 世界 最舊 國民의 一切로 進步改善을 催促함에 努力한 記錄은 比津賓 群島의 向上에 盡瘁 하던 各人士에게 非常히 興味가 有한 敎訓를 與한 者이라. 就中 吾人의 感興을 惹起함이 深遠함은 日本이 아즉 泰西 文明의 影響을 受함에 未及하였든 時代에 對하여 事實上 各項 藝術을 日本보다도 舊國되는 朝鮮으로브터 輸入한 事와 及其 日本이 今에는 反히 其 屬領된 此 舊國의 衰相을 往時의 盛況으로 復興케 하기를 努力하는 事이 是也라.

1905년에 對한 韓國保護國 政治의 確立과 1910년에 對한 韓國의 併合은 日本으로 하여금 米國이 比津賓에 對한 施政과 殆히 同一한 幾多 問題에 逢著케 하였스니 前記 施政 年譜에 記述한 朝鮮 開發의 施設은 此를 比津賓 改革의 事蹟에 比하여 特히 感興을 惹起함이 二三에 止지 안이 하도다. ....<sup>10)</sup>

위 기사는 당시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 학무국에서 간행된 영문잡지 「比津賓 코라후쓰만」 즉 필리핀의 코라후쓰만 신문의 사설을 소개한 것이다. 「코라후쓰만」은 조선총독부의 영문 시정연보를 「일본이 조선인의 진보개선을 위해 노력한 기록」이라며, 식민지 조선의 진보가 역시 식민지인 필리핀의 발전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밑줄 친 부분에 나와 있듯이, 일본의 1905년 대한제국 보호국화 1910년 한일병합으로 인해, 미국이 필리핀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조선에서도 발생하였으나, 시정 연보에 기술되어 있는 조선의 개발 상황으로 미루어보건대 일본이 미국보다 더 훌륭하

10) 「朝鮮의 進步 改善」, 「매일신보」, 1914년 7월 12일, 1면. 밑줄은 논자에 의한다.

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기사는 미국의 통치를 받는 필리핀보다 일본의 통치를 받는 조선이 얼마나 많이 「개발」되었는지를 피력하고, 식민통치를 하고 있는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결과적으로 일본의 시정 능력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호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식민통치를 하는 미국에서 발간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 그리고 식민통치를 받는 필리핀에서 발간된 코라후쓰만 신문의 사설을 연속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일본의 시정 능력을 선전하고 그의 통치를 받는 조선의 「진보」를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타자와의 비교에 있어서 영문 시정연보가 매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문 시정연보의 유통과 역할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다음 기사이다.



『매일신보』1918년 5월 24일

英文 朝鮮總督府 施政年報 外字新聞 批評(上)

大正 7년 3월 31일 發行 北米 오레곤州 포트랜드市 오레곤 자날誌 記事 抄譯  
朝鮮의 日本施政

本社は 朝鮮總督府 元帥 長谷川 伯爵으로부터 英文 朝鮮 施政年報을 受領  
하였노라. 今에 此를 閱하건대 日本人은 朝鮮에서 政治改革者되고 工事施行  
者되고 兼하여 教育者되얏도다. 其 施設의 狀態는 宛然히 佛國人の 알제리  
아에 對함과 彷彿하여 讀者여 若 地圖를 一覽하면 朝鮮이 一個의 島라고도  
謂할 만한 狹長한 半島를 成한 것을 見하리라. 如是히 朝鮮은 地理上으로 言

하야도 日本島 帝國의 一部에 不外한 즉 日本人이 朝鮮을 併呑하였다 할지라도 此로써 亞細亞大陸을 蠶食하는 것이라고 謂지 못하겠다.

前記의 年報에는 一般 內治 外政의 主要한 事項 卽 監獄, 教育, 農業, 財政 等に 扥하여 記述하였더라. ....<sup>11)</sup>

위의 기사에 따르면, 조선총독부의 영문 시정연보가 북미 포틀랜드 『오레곤 저널』에서 기사화되었기에, 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매일신보에 게재하였다고 한다. 오레곤 저널측은 조선총독부 원수(元帥)인 하세가와(長谷川) 백작으로부터 영문 시정연보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일본인이 조선에서 정치개혁자, 공사시행자, 교육자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이는 프랑스와 알제리의 관계를 방불케 한다고 한다. 또한 가늘고 긴 반도에 위치하는 조선은 지리적으로 봐도 일본제국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병합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아시아대륙을 잠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해당 기사에는 영문 시정연보가 「조선총독부→오레곤 저널→오레곤 저널의 평가→조선에서의 오레곤 저널 인용」으로 유통된 과정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조선총독부의 논리가 영어 번역을 통해 외국으로 전해지고, 외국의 저널을 통해 기사화 된 후, 그것이 다시 당시의 조선으로 역수입된 것이다. 즉 조선총독부가 펼친 한일병합 정당화의 논리가 영어라는 매개를 통해 해외로 전달되어 해외 저널에 게재됨으로써 정당성을 담보 받고, 그 유통과정을 통해 조선총독부의 논리가 어느새 해외 저널의 논리로 포장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당성과 객관성을 담보 받은 그 해외 저널의 논리가 다시 한국어로 번역되어 소개된다. 다시 말하면 일본 제국주의의 논리가 영문 텍스트를 경유하면서 서양의 권위를 등에 업고 조선 사회에 뿌리

---

11) 「英文 朝鮮總督府 施政年報 外字新聞 批評(上)」, 『매일신보』, 1918년 5월 24일, 1면.

내리는 과정에서 영어 텍스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어로 재생산된 텍스트의 미디어 경유는 왜곡된 정보를 사실화하고 결과적으로 식민지 조선에 집합적 기억(Collective Memory)을 조성한다. 허위정보가 사실로 굴절되는 그 시작이 영어로의 전환과 미디어 유통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영어 문건의 분석은 조선총독부의 정치적 전략 규명에 있어서 대단히 유효한 방법임과 동시에 반드시 조명 받아야 하는 텍스트이다.

### Ⅲ. 「일본어·영어 대조 텍스트 사료군」의 연구 의의

서구 열강의 개항 압력으로 시작된 동아시아의 근대화는 「선진」 서양 문물과 학술지(學術知)의 유입·번역·유통을 통해 가속화되었다. 그 당시 영어는 근대문명의 발상지인 서양의 문(文)과 지(知)를 담은 「문명」의 언어이자 서구 열강과의 소통의 매개로 여겨졌다.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영어 텍스트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도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특히 후발 제국으로서 열강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웠던 일본이 자국 정책서의 영문판 저작을 통해 구미 열강의 승인을 얻고 국제적 규범을 획득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 일례로 일본은 러일전쟁에 승리하자 식민지 지배 교육정책의 근간이었던 「교육에 관한 칙어(教育に関する勅語)(1890)의 영문판 「The Imperial Rescript on Education」(1907)을 출간하였다. 교육칙어는 일본 제국주의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확고히 하고, 황국사관을 기반으로 한 충성스런 황국신민의 창출을 위해 제정한 교육 지침인데, 이 천황제 교육이념을 보급시

키기 위해서 「국제적인 승인」이 필요했던 것이다<sup>12)</sup>. 그런데 이 영문판 교육칙어 「The Imperial Rescript on Education」의 번역 과정이 결코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그 번역 논리와 방법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었고, 각자의 논리에 따라 다수의 번역본이 제안되기도 했다. 특히 그 중에서 다음의 「국체(國體)」를 어떻게 번역할지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朕 생각하건대 우리 皇祖皇宗 나라를 일으키기를 宏遠하고 德을 세우기를 深厚하다. 우리 臣民은 忠을 다하고 孝를 다하여, 모든 백성이 하나 된 마음으로 美를 만들어 왔다. 이것이 우리 國體의 精華이고 教育의 淵源이다.  
 ……<sup>13)</sup>

교육칙어는 교육의 연원이 일본의 독자적인 「국체」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국가에 대한 신민의 헌신을 요구하며, 이것이 보편적인 진리라는 점을 강조한 일본제국주의의 교육 지침이다.<sup>14)</sup>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 개념인 「국체」를 어떻게 번역할지가 중요하였고 이슈화된 것이다. 그런 가운데 「National Constitution」, 「Nation's Honour」, 「Nation's Constitution」, 「National Consitution」 등이 제안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 메이지(明治)시대의 관료·정치가인 가네코 겐타로(金子堅太郎)가 발의한 「The Glory of the Fundamental Character of Our Empire」가 채택되었다. 가네코는 영국의 정치철학자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의 저서 『Reflections

12) 平田論治, 「文部省編『漢英仏獨教育勅語訳纂』の成立をめぐる国際関係」, 『教育史學會紀要』62, 教育史學會, 1994, p.45.

13) 朝鮮總督府(1916), 『朝鮮·漢·英·佛·獨訳 教育勅語』, p.3. 「朕惟フニ我カ皇祖皇宗國ヲ肇ムルコト宏遠ニ德ヲ樹ツルコト深厚ナリ我カ臣民クク忠ニクク孝ニ億兆心ヲ一ニシテ世々厥ノ美ヲ濟セルハ此レ我カ國體ノ精華ニシテ教育ノ淵源」의 부분을 필자가 번역하였다.

14) 박진우, 「일본파시즘기의 천황제이데올로기와 국가신도-강제와 동의의 관점에서-」, 『일본학연구』제18집, 단국대 일본연구소, 2006, p.396.

on the French Revolution』을 초역한 경험이 있는데, 그 버크의 저서에 나오는 「Fundamental Political Principle of England」라는 어휘를 국체 번역에 응용했다.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이 영국의 기초적 정치 원칙(Fundamental Political Principle of England)을 파괴했다고 논했는데, 가네코는 이 「Fundamental Political Principle of England」가 만세일계(萬世一系)로 계승되는 일본의 독자적인 정치적 원칙 즉 「국체」와 유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sup>15)</sup>

그리고 이렇게 관료, 학자들을 결집하여 만든 영문판 교육칙어는 일본 대내적으로는 교육 칙어에 대한 재검토의 가능성을 억지했고, 대외적으로는 기존 열강제국의 승인을 확보하는 기능을 했다.<sup>16)</sup> 또한 러일전쟁 후 공식적으로 번역되고 소개된 교육칙어가 영국에서 주목을 받아 일본 문부성은 그 반향을 일본의 국민통합에 활용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한·영·불·독 교육칙어 역찬(漢英仏獨教育勅語訳纂)』을 통해 미국에서 거듭 소개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의 교육 이념화의 전제조건으로 이용했다.<sup>17)</sup>

이러한 교육칙어의 영문판 번역의 예를 보건대 당시 국가 권력에 의해 제작된 영어 번역본에는 정치적 의도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 있으며, 그렇기에 어휘선택 문제 등 언어학적 접근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조선총독부 간행 영문 텍스트에 대한 언어학적 접근은 일본어로 된 문건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함의를 보다 더 정밀하게 추출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총독부는 일본어로 쓰인 문건을 영어로 다시 번역하여

15) 平田論治, 「官定英訳教育勅語における翻訳の思想」, 『英学史研究』, 日本英学史学会, 1993, pp.59~70.

16) 平田論治, 「文部省編『漢英仏獨教育勅語訳纂』の成立をめぐる国際関係」, 『教育史學會紀要』62, 教育史學會, 1994, p.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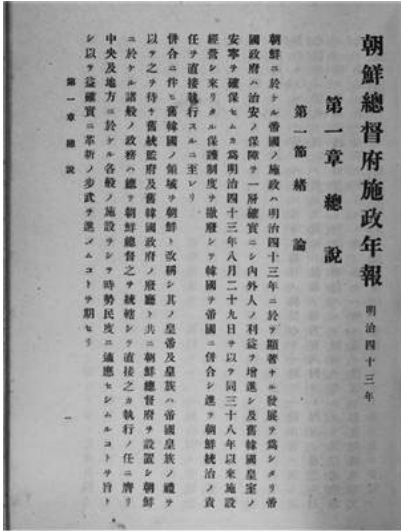
17) 平田論治, 「教育勅語の翻訳と帝國主義世界」, 『日本の教育史』47, 教育史學會, 2004, pp.203~204.

배포하거나, 처음부터 일본어, 영어 대역본으로 만든 책자를 제작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본어와 영어의 텍스트가 함께 존재하는 문건이다.

【표2】「일본어·영어 대조 텍스트」 사료군

형태	일문 사료	영문 사료	비고
①	朝鮮總督府施政年報 (1908-1923)	Annual report on reforms and progress in Chosen(1907-1923)	
②	朝鮮教育要覽(1913)	Manual of education of Koreans(1913)	현재 일문 사료 소재 불명
③	朝鮮教育要覽(1919)	Manual of education in Chosen 1920(1920)	
④	朝鮮總督府施政年報 (1924-1941)	Annual report on administration of Chosen(1924-1940)	
⑤	我国は朝鮮で何を成したか (1932)	同(英文)(1932)	『소화(昭和)7년 6월 현재 조선총독부 급 소속관서 주요간행도서 목록』
⑥	(朝鮮·漢·英·佛·獨譯)教育勅語(1916)		한국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버전
⑦	朝鮮: 寫真帖(1925)		일본어·영어 좌우 대역본

위의 표 ①과 ④는 조선총독부가 매해 발간한 시정연보로 일본어로 간행된 이후 영문으로도 만들어졌다. 다음 사진은 1910년도 시정연보로 일본어판 및 영어판의 도입부이다.



『朝鮮總督府施政年報』(1910)



『Annual report on reforms and progress in Chosen』(1910)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이 영문판은 해외에 소개된 후 그 해외의 평가가 다시 조선으로 유입됨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의 정치적 논리를 정당화했다. 앞에서 예시한 교육칙어의 영문 번역처럼 번역 그 자체가 정치적 행위였던 것이다. 물론 조선총독부의 모든 문서가 영어로 번역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어 번역이 어떤 시기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영어 번역 대상이 취사선택되었으며, 어떠한 번역 논리에 의해 어떠한 어휘를 사용했는지는 일제강점기 역사의 한 단면을 고찰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는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자료 중에 일본어와 영어 두 종류의 언어로 존재하는 특정 문건들을 「일본어·영어 대조 텍스트」라고 명명하고 그 의의와 분석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앞에서 조선의 경제, 자원, 교육 등의 제반 사항을 통계화한 시정연보가 해외 유통을 경유한 후 조선 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논하였는데, 그 유통과정뿐 아니라 일본어로

작성된 시정연보와의 언어학적 비교 분석을 통해 그 안에 내재된 함의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어·영어 대조 텍스트」의 분석은 유실된 초판본의 복원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면 위 표의 ②, ③은 각각 『조선교육요람(朝鮮教育要覽)』과 그 영문판이다. 『Manual of education of Koreans』(1913)는 『조선교육요람』(1913)을 기반으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헌이다. 『조선교육요람』이 처음 작성된 것은 1913년 6월로 그 이후 1916년 12월, 1919년 1월, 1929년 1월에 각각 개정판이 제작되었다.<sup>18)</sup> 다만 초판인 1913년판은 현재 소재 불명이며 기존의 관련연구는 개정판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역사학, 문학, 언어학 등 그 장르를 막론하고 인문학 연구에 있어서 텍스트의 초판본은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 제시한 「일본어·영어 대조 텍스트」라는 관점은 이러한 연구기반의 문제점을 극복하게 한다. 즉 개정판 『조선교육요람』(1919)과 그에 대응하는 영문 텍스트 『Manual of education of Chosen』(1920)으로부터 유실된 초판본 『조선교육요람』(1913)의 역추적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일본어·영어 대조 텍스트」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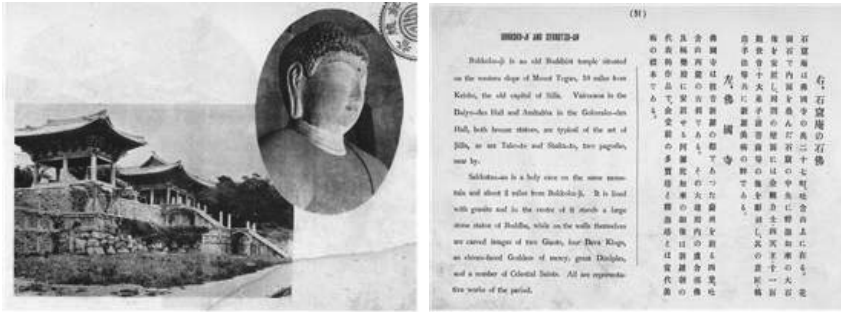
한편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진첩을 출간했다. 국내외의 도서관, 박물관 등을 조사한 결과 총 66점의 사진첩이 수집되었으며,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관광 홍보 등을 목적으로 발간한 것이 41점으로 가장 많다는 보고도 있다.<sup>19)</sup> 【표 2】의 ⑦ 『조선: 사진첩(朝鮮: 写真帖)』도 이러한 사진첩의 일종으로 1925년에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

---

18) 渡部学その他編, 「第一集「教育要覽類」について」, 『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 朝鮮篇 第4巻』, 竜溪書舎, 1987, p.6.

19) 장원석 외, 「일제의 사진첩에 투영된 식민지 조선의 이미지」, 『한국사지리지학회지』 vol.30, no.2, 통권 72호, 2020, p.44.

장본에는 총 75장<sup>20)</sup>의 사진과 함께 영어와 일본어로 사진 설명이 첨부되어 있다.



『조선: 사진첩(朝鮮: 写真帖)』<sup>21)</sup>

사진첩 속에 게재된 사진의 구도와 배치에는 그 제작자 즉 일제의 조선 인식과 의도가 투영되어 있다. 카메라 즉 기계에 의해 촬영된 사진은 객관적인 자료로 생각되기 쉽지만, 피사체의 취사선택과 촬영 구도는 인간의 행위이기에 그 안에는 촬영자의 의도와 목적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sup>22)</sup> 특히 『조선: 사진첩』의 사진에는 각각 영어와 일본어의 설명이 첨부되어 있는데, 영어의 독자층과 일본어의 독자층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두 언어의 설명문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사진첩의 제작시기가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두 언어 사이에는 간극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어·영어 대조 텍스트」 사료군 연구의 의의는, 두 언어 사이의 균열과 간극을 분석함으로써 조선총독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2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는 원본이 4페이지 누락되어 있음.

21) 朝鮮總督府, 『朝鮮: 寫真帖』, 1925, 페이지 수 기재 없음.

22) 장원석 외(2020) pp.42~67.

## IV. 나오며

본고가 보고한 조선총독부 발행 「일본어·영어 대조 사료군」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하였다. 일본어로 쓰인 텍스트만이 조선총독부 기록물의 일환으로 단편적 분절적 자료로 활용될 뿐이었다. 그러나 특정 문헌이 영어와 일본어라는 두 개의 언어로 병존한다는 것은 각각의 텍스트에 서로 다른 지향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두 텍스트 사이에는 그 내용 또는 언어표현에 있어서 충돌과 균열이 존재한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공식 언어였던 일본어로 쓰인 텍스트와는 달리 영어로 성립된 텍스트는 대외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두 언어 텍스트의 비교분석은 조선총독부의 대내외적 정책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일본어·영어 대조 텍스트」라는 새로운 사료군의 연구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현재까지 조사된 사료군을 보고했다. 또한 국경을 넘어 이러한 텍스트가 유통·소비되는 연속구조를 고찰함으로써 영어로 제작된 문건이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는 매개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일본제국주의는 선진국에 대한 종속성과 식민지에 대한 폭력성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sup>23)</sup> 조선총독부는 조선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구열강의 「승인」을 목적으로 「문명」의 언어이자 타자(他者)의 언어인 영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영문 텍스트는 서구 열강의 동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이자 퍼포먼스로 식민지 통치를 위해 작성된 일본어 텍스트와는 그 궤를 달리 한다. 「일본어·영어 대조 텍스트」는 그 이중성을 구체적·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조선총독부의 대내

---

23) 大石嘉一郎, 「課題と方法」, 『日本帝國主義史』I, 東京大学出版会, 1985, p.15.

적·대외적 의식구조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중요 사료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정밀한 조사 및 분석을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한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20년 11월 9일

논문 심사일 : 2020년 11월 30일

게재 확정일 : 2020년 12월 7일

## 참고문헌

- 매일신보, 「朝鮮의 進歩」, 1914년 7월 10일, 1면.
- 매일신보, 「朝鮮의 進歩 改善」, 1914년 7월 12일, 1면.
- 매일신보, 「英文 朝鮮總督府 施政年報 外字新聞 批評(上)」, 1918년 5월 24일, 1면.
- 매일신보, 「英文 廿五年史 各方面에 頒布」, 1935년 11월 1일.
- 박성진 외, 『조선총독부 공문서 일제시기 기록관리와 식민지배』, 역사비평사, 2007, pp.11~352.
- 박진우, 「일본파시즘기의 천황제이데올로기와 국가신도-강제와 동의의 관점에서-」, 『일본학연구』제18집, 2006, 단국대 일본연구소, p.396.
- 이경용,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 제도」, 『한국기록학연구』10, 한국기록학회, 2004, pp.226~275.
- 장원석 외, 「일제의 사진첩에 투영된 식민지 조선의 이미지」, 『한국사진지리학회지』vol.30, no.2, 통권 72호, 2020, p.42~67.
- 朝鮮總督府, 『朝鮮·漢·英·佛·獨訳 教育勅語』, 1916, p.3.
- 朝鮮總督府, 『朝鮮：寫眞帖』, 1925.
- 朝鮮總督府 官房文書課,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 主要刊行圖書目錄』, 1938.
- 한국가기록연구원, 『조선총독부 공문서 다계층 상세목록집』, 한울, 2005.
- 한국가기록연구원, 『조선총독부 공문서 종합목록집』, 한울, 2005.
- 大石嘉一郎, 「課題と方法」, 『日本帝國主義史』I, 東京大學出版會, 1985, p.15.
- 平田諭治, 「官定英訳教育勅語における翻譯の思想」, 『英学史研究』, 日本英学史學會, 1993, pp.59~70.
- \_\_\_\_\_, 「文部省編『漢英仏獨教育勅語訳纂』の成立をめぐる国際關係」, 『教育史學會紀要』62, 教育史學會, 1994, p.45.

\_\_\_\_\_. 「教育勅語の翻訳と帝国主義世界」, 『日本の教育史学』47, 教育史學會, 2004, pp.203~204.

渡部学その他編, 「第一集「教育要覧類」について」, 『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 朝鮮篇 第4巻』, 竜溪書舎, 1987, p.6.

Abstract

## Japanese-English Parallel Texts Pu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Their Historical and Research Importance

Hyo-sook, Kim

Eun-Joo, Kwak

Byung-jin, Lee

Jin-young, Tak

Previous research on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has mostly investigated only Korean or Japanese text data in spite of the well-known fac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lso published lots of the equivalent documents written in English. Considering this fact, the current paper is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nglish texts parallel to those of Japanese (i.e., Japanese-English parallel texts).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rigorously exploited English, a language of civilization and the third language rather than Korean or Japanese, to get an approval from western countries to ensure its legitimacy of Joseon's ruling. For that reason, it was proposed that the English texts at that time were different from the original Japanese texts whose main purpose was to efficiently rule Joseon. In other words, English was a political vehicle to obtain support of the western powers; in the English texts parallel to the Japanese texts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www.kci.go.kr](http://www.kci.go.kr)

camouflaged its original intention which emerged in equivalent Japanese text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that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historical importance of English-Japanese parallel texts and call for a further investigation or analysis of the circulation of these texts and texts themselves.

#### Key-words

Japanese Occupation Period,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Japanese-English parallel texts, Japanese, English

